

법구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이목으로 삼아,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취보지 못할 것이 없고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거늘 굳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목만을 고집하여 이목에 빠져들기를 자초하려는가.
-선림보훈-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우리는 선우' 티베트 지원

우리는선우(이사장 박공서)가 최근 '티베트 승가와 난민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논 기사를 끌고 있다. 94년부터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불교계들과와 왔던 단체인 티베트 이 일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지원 대상국을 '티베트'로 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불교신행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티베트 지원 계획을 세웠다는 뉴스성만도 아니다. 그 보다는 티베트를 피상적 알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티베트와 한국의 대승불교의 맥을 잇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가 후기대승, 즉 밀교라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불교계는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가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티베트는 대승 불교국가이자 형제의 나라'라는 말을 해왔지만, 우리에게 티베트는 가깝고도 먼 나라'일 뿐이었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 문제로 한차례 열병을 앓고 난 지금도 그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그 과정에 티베트의 역사나 문화, 중국으로부터 압박받는 정치 상황 등이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음알이 일 뿐이다.

매년 중국의 핍박에서 탈출한 1200여 티베트인이 국경을 넘어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불교계는 그 난민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원회 정몽기 국장은 '한·티 불교계의

교류는 왜 달라이 라마가 방한해야 하는 지에 답을 줄 수 있다'며 '준비위도 방한에 앞서 한·티간 실질적인 교류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책과 영화를 통해 만난 티베트인들은 부처님을 따르는 순수한 열정의 소유자들이었다. 티베트 스님들 역시 교리를 배우고 제을 지키는 일에 철저한 수행자들이었다. 티베트를 돕는 일은 바로 이들의 신앙의 맥이 끊이지 않게 지켜주는 보살행이다.



우리는선우는 15일 티베트 망명정부를 방문하는 준비위와 함께 다람살라의 티베트 교육 기관과 난민숙소를 돌아보고 귀국한 후 27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티베트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포교한다거나 또는 지원한다는 것에 '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려운 처지의 티베트인들을 돕는 이 일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길 기대한다.

오종욱(취재 1부 기자)

가야산 관통도로 백지화 결정

창원지법 우회권고
경남도 "노선 변경"

가야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가야-봉산 구간의 도로(국가지원지방도 59호) 건설계획이 노선지정 5년만에 백지화되었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박기동 판사는 가야산환경위원회(위원장 장원스님)와 지역주민 대표 66명이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59호선 도로가 가야산국립공원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구립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양측이 6월 29일 수용함으로써 가야산 관통도로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법원은 권고사항을 통해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축전(시점)~성기(종점)간의 1구간 도로중 축전~가천1교까지의 구간에 대해 도로구역결정을 취소하고,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벗어난 가천1교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내용의 권고부장관의 노선변경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권고 수용으로 경남도의 가야산 관통도로 추진의사는 완전히 철회되고, 건교부의 최종 변경노선 결정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가야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변경안

이에 대해 조계종과 가야산환경위원회,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가야산 관통 순환도로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뤄진 난개발의 전행이었다'며 '해인골프장 건설보다 더 큰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뻔한 도로건설이 백지화돼 인도한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가야산 해인골프장 백지화에 이은 대규모 사찰환경관련 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으며 지난 5월 23일 해인사와 주민들간의 노선변경 합의 등 민간환경단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자연·문화환경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불교환경운동에 또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a.com



○실상사는 수행자들의 발로참회와 거들남을 위한 3·7(21)일 단식 기도정진을 시작했다. 5일 입재사에서 참회의 실을 올리는 실상사대중스님들.

청동대불 파문 '일단락'

해인사, "불사 재검토" ... 수좌 사과문 발표
실상사, 사과요구 철회 단식기도정진 입재

해인사의 '청동대불 파문'이 이달 여만에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해인사(주지 세만)가 세간의 비난 여론을 의식 '세계 최대' 청동 대불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또 5일 수좌들의 실상사 기물파손 행위를 사과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21일부터 일주일간 전 대중이 참회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실상사(주지 도반)도 5일 실상사내 화엄학림 강당에서 전체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종단내 폭력근절을 위한 단식기도정진' 입재식을 가졌다. 25일까지 21일간 계속되는 단식기도에는 주지 도반스님과 수경스님, 화엄학림 학생 연편스님 등 6명의 스님들이 동참하고 있다.

경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된 '43m' 대불 조성에 대해 해인사 총무 직은스님은 6일 '청동대불과 가야산 등 주변 환경을 입체모형도로 만들어 조화를 살피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좌불)의 규모와 크기 등을 조절하겠다'면서 '현재 이를 위해 문화재, 환경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있으며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적인 불사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인사는 유나 원웅스님 이틀째 5일 발표된 사과문에서 '청동대불 문제로 결정중에 대중이 밖으로 움직여 교계 인파에서 불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을 발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회문 22편·불사 비문 23편' 관련 '해인사 대불조성' 파문으로 발생한 실상사와 해인사간의 문제가 양쪽의 참회로 원만히 수습되자 교계 단체들과 불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고 더욱 화합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희망했다.

이경숙 기자 gkim@buddhapa.com

장군 죽비

- ◇ 화엄장학회 '95년부터 올해까지 82명의 학인들에 장학금 '공양' 보시의 공덕과 회향의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되돌려지기를. (8편)
- ◇ 장길수군 가족 7명만이 탈북자는 아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진지한 모색을 할 때다. (8편)
- ◇ 경기도 안성 도피사 '한글대장경'으로 정대불사. 오늘 우리 손으로 이룬 법보를 뱃목으로 삼아 피안으로 향한다. (22편)
- ◇ 소책자마을 중·고 대학생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자원 봉사 발길 채도 봉사하고, 보람있고, 치악산 국립공원 여행까지. (23편)

수습기자 찾습니다

7월 20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부착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현, 부처님과 중생을 이어주는 믿음의 가고구실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의 내일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 부분	모집 요건	응시지역	전형일차		
			1차	2차	3차
수습 기자	20대 초반 2001년 9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졸업예정자 법학 또는 사법학 1973년 1월 1일 이후 법학 또는 사법학 1976년 1월 1일 이후 졸업자	전국	서류 평가	실기	면접

■ 접수기간 : 2001년 7월 20일(금)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 본사 인터넷신청인 붓다뉴스 http://www.buddhanews.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불교정보사이트인 부다피아 http://www.buddhapi.com/에 접속, 안내에 따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를 시용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지문의전화(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승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승산 행원 선사(深山 行願 禪師)

승산 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아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교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파주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회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95년 일본에 출향한 개성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웨덴, 브라질, 프랑스 등에 동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승산 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회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승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툇 볼 때, 내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의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의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여시아문 이시아문은 물론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여온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066, 737-8881 팩스: 737-0067

부처님께 재를 털면?

